

일본 윤활유업계 현황(Ⅳ)

- Ⅰ. 윤활유 업계 현황
- Ⅱ. 윤활유 업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 Ⅲ. 윤활유 제조기술 역사와 연구개발활동
- Ⅳ. 자동차 산업과 관련 윤활유 동향
- Ⅴ. 폐유 재생현황과 공해대책

V. 폐유재생 현황과 공해대책

○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 되었기 때문에 공해 문제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고 볼수있으며 특히 1970년 후부터 수질환경기준결정, 수질오염 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의처리및 청소 에 관한 법률등이 공포되었다. 폐유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용자, 특별상각및 고정자산세의 감면 등 특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정유공장에 대한 정부의 공해규제는 매우 철저하며 특히 제유소에 대한 규제 내용은 <표 V-1>와 같으며 그외에는 공해방지조례· 공해방지협정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 기타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으로는 종합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이 각처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는 자기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

<표V-I> 製油所에 關係되는 主要 公害規制

(項 目)	(關 聯 法 規)	(規 制 內 容)
대기오염	대기오염방지법 전기사업법	매연방지시설(Boiler, 石油加熱炉, 폐기물소각로 등)로부터 SO _x , NO _x 등 排出規制, SO _x 에 關한 事業場의 總量規制, 特定地域에서 使用연료 規制.
惡 臭	惡臭防止法	Ammonia, Methyl mercaptan, 硫化水素, 硫化 Methyl 二硫化 Methyl 等の 敷地境界線에서의 濃度規制
水質汚濁	水質汚濁防止法 瀬戸内 海環境保全特別措置法	COD, SS, n-Hexane 의 배출구에서 농도규제 COD 에 關한 瀬戸内, 三大灣에서의 總量規制
해양오염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關한 法律	선박폐유처리시설 설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의 유출금지, 배출유 방재자기제의 配備, 油回收船의 配備
騒 音	騒音規制法	컴플렉서, 부로어의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부지 경계선에서의 허용한도 규제
振 動	振動規制法	"
地盤沈下	工業用水法	製造業等の 用水 취급上的 規制
廢 棄 物	폐기물의 처리및 청소에 關한 法律	事業所의 責任으로 處理할것. 또는 委託처리를 行할時 責任所在關係되는 規程
其 他	工場立地法, 工業再配置法 수도권에서의 공업등 제한法 自然公園法, 자연환경보전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공유수면 매립법, 항만법 등	

지 않으면 안된다는 배출자 책임 원칙하에서 “폐기물처리및 청소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사업자는 시, 도, 부, 현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기관에 의한 처리등 두가지 방법중 선택처리 하고있다. 동경 인근 공업도시에 있는 시·현 에 있는 폐유처리 허가업자(운반·수집·처분) 현황을 알아보면 <표 V-2>와 같다.

○ 폐윤활유 재생처리에 있어서는 전국에 걸쳐 일본Oil(주) 의 39개 업체가 전문 또는 부분적으로 재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공업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대규모 공장이나 혹은 전력회

지역명	업체수	허가내용(업체수)
東京都	553	수집, 운반, 처분 (17 개)
神奈川県	126	수집, 운반, 처분 (2 개)
横浜市	338	수집, 운반, 처분 (10 개)
川崎市	284	수집, 운반, 처분 (31 개)
横須賀市	84	수집, 운반, 처분 (3 개)
千葉県	291	수집, 운반, 처분 (16 개)
埼玉県	137	수집, 운반, 처분 (12 개)

사로 부터 폐윤활유를 위탁받아 재생처리 하고 있다.

염소와 당나귀

한 농부가 염소와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항상 일을 많이 하는 당나귀만 배불리 먹이고 염소에게는 별로 맛도 없는 먹이를 그나마 조금씩밖에 주지 않았습다. 썩이 난 염소는 당나귀가 주인에게 미움을 사도록 만들 궁리만 했습니다.

마침내 염소는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당나귀야, 너는 하루 종일 무거운 짐만 나르고 연자방아를 돌리며 고생하니 딱해서 볼 수가 없구나. 피병이라도 좀 부러려부나.』이에 당나귀는 부러 몸에 상처를 내고 드러누워 끄꿍 앓았습니다. 당황한 농부는 곧 의사에게 당나귀를 보였습니다. 당나귀를 진찰한 의사는 염소의 간을 뽑아 당나귀에게 삶아 먹이면 당나귀의 병이 곧 나을 거라고 농부

에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의사가 시킨대로 염소를 잡아 그 간을 당나귀에게 먹였습니다. 썩을 내고 당나귀를 부추기던 염소는 결국 불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어리석은 당나귀는 물론 간악한 염소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당나귀, 염소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든 당나귀보다 염소가 더욱 나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음이란 사악함 못지 않은 악덕(惡德)일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고 반성만하면 고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하는 나쁜 행위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할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슬그머니 버린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